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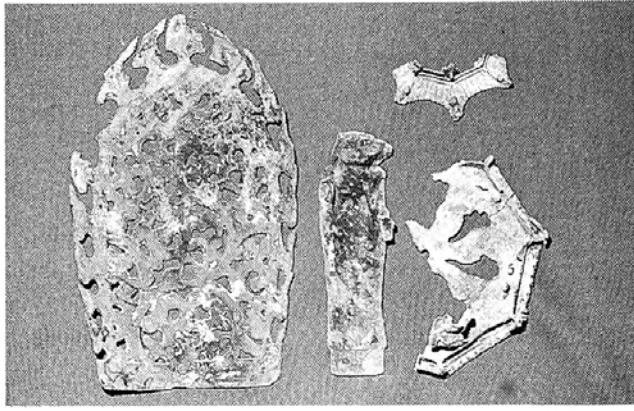
고려 화엄신앙 연구 획기적 자료

도감사 문수동자상 출토 의의

청동광배(光背), 청동불갑(佛冠)과 함께 발굴된 청동 문수동자상은 청동조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발굴된 것이어서 불교미술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의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발굴된 이 문수동자상은 사자위에 연화대좌를 마련하고 그 위에 앉아 있는 형상으로, 동자상은 관후선 통체에 정교한 옷주름

목포박물관측은 동자상의 자세, 양언(仰眼)과 연화문의 시문 양식, 사자의 걸기, 장이나 꼬리 등에 새겨진 문양이 전형적인 고려 불상양식임을 들어 이 문수동자상이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도감사에서 고려시대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 양식이 통일신라시대나 조선시대의 양식과는 다



◇영암 도감사에서 문수동자상과 함께 발굴된 청동광배, 관음, 불갑.

자에 대해서는 세조의 병을 고쳐 준 이야기 등 많은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 <삼국유사> 권4·자장정율편과 <보살처태경>의 '문수신변화품', <법화경> 등에도 문수보살이 사자보좌로 변하거나 사자를 탄 모습이 나타나 있다.

홍익대학교(동국대 박물관장)는 "시대 추정엔 좀 더 구체적인 확인작업이 뒤따라야 할 문제지만 고려시대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번 발굴은 고려시대 화엄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조사원왕상은 상당부분 파손된 상태나,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1515년경) 이전인 조선 초기(1450~70)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돼 불교조각사 연구에 획기적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성화(成化)3년'(1467년) 및 '강희(康熙)13년'(1674년)이라고 새겨진 명문기와가 출토됨으로써 도감사가 조선 전기 왕실의 지원에 의해 대대적인 불사가 이뤄졌다는 <보유록(南遊錄)> 등 각 문헌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됐다.

한영우 기자

동자상 문양·형태 전형적 고려양식 청동광배·소조사천왕상도 발굴 명문기와 '보유록' 기록 사실 입증

이 표현과 있으며, 오른손과 왼손은 각각 무엇인가를 쥐거나 들고 있는 듯한 자세다.

당당한 자세의 사자상은 목부분에 섬세한 걸기가 조각돼 있고, 몸에는 배를 가리는 대좌(臺座), 반개구늪이 새겨진 가슴걸이와 그 밑에 방울이 장식돼 있다. 또 사자 등에는 연후문과 연화문이 새겨진 하대석이 있고, 그 위에는 원통형의 중대석을 마련하고 3층 양연의 상대석이 조각돼 있다.

르다는 것도 고려시대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수동자상 발굴은 문수신앙이 폭넓게 퍼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서 미술사적 가치 외에 학술적 가치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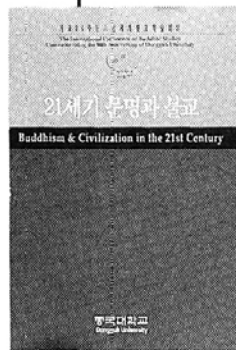
문수동자상은 문수보살이 형상화된 모습으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며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에게 선지식을 찾아 도를 완성토록 권하는 지혜의 좌표역할을 하고 있다. 문수동

한편 문수동자상과 함께 발굴된 대형

동국대 '21세기 문명과 불교' 출간

개교 90돌기념 국제학회의 발표논문 20편

동국대는 지난해 10월 개교90주년을 기념해 개최했던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한 세계 불교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묶은 책자를 발간했다.



세계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불교적으로 조명하고 21세기를 향한 한국불교의 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던 학술회의의 내용을 담은 이 책자는 7백쪽의 분량으로 학술대회 주제인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표지로 삼고 있다.

'21세기 문명과 불교' 학술대회에서는 '21세기 문명론의 불교적 조명', '종교다원주의와 불교', '지구화시대의 사회윤리와 불교', '자연, 환경, 생명과 불교', '한국불교의 세계화' 등 다섯가지 주제에서 다시 각 분야별 2개 소주제에 대해 국내외 학자 각 1명씩 발표된 바 있다.

이 책은 송석구 총장의 '21세기 문명과 불교' 기조연설문을 비롯해 '포스트모더니즘과 불교' (김용정), '정보문명론과 불교' (마츠모토 시로), '불교와 기독교' (레오나드 스위틀러), '종교다원주의 불교적 조명' (윤이훈), '대승불교와 사회정의의 구현' (로버트 쉐란), '환경문제와 불교적 조명' (호진스님), '한국불교의 세계화:종교적 성찰' (박성배) 등 국내외 학자 논문 20편이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번역돼 실려있다.

도필선 기자

"禪사상은 미래인류문명 원동력"

이은운씨 하나로포럼서 '21세기와 선정문화' 발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선정문화' 활동전망 밝아

주의를 입세간주의(入世間主義)로, 성(聖)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끌어내린 생활불교이며 민중불교, 실천불교라고 정의했다.

또 선(禪)은 종교적으로 선불교, 사상적으로 선사상, 학문적으로 선학이라고 불리고, 다른 사상과 종교와는 구분되는 단순성과 직관성, 일상성, 실천성, 혁명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세계적인 열풍이 일고 있는 선의 연구와 조명은 선사상의 어록을 중심으로 한 조사서의 '선사상'이라며 선정과 조사서의 선이 갖는 차이점을 조명했다.



"선의 핵심은 일체의 법과 더불어 살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씨는 선불교가 민족성과 부합해 한·중·일 3국의 선(禪)문화, 선화(禪畫), 다도, 근로철학 등의 독특한 선문화를 생성, 발전시킨 점에 들어 선정문화의 대중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선문화를 중심으로 한 자연친화주의적 경향이 우리나라 아바트간설에서 새롭게 등장, '자연친화'적 주거문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일례는 큰 공감을 얻었다. 이씨는 또 "선사상이 정신분석학,

스포츠, 심리학 등의 형태로 미래사업으로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씨는 결론에서 "분석적 경영보다는 직관경영, 미시적 경영보다는 거시경영이 우선적 가치를 갖게될 미래에는 그 시대를 이끌만한 인류사상으로 선사상이 최적"이라고 말하고 "선사상과 선정문화가 미래 인류문명의 원동력을 인식, 초종교적으로 연구하고, 대중적으로 회향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필선 기자

法數로 배우는 불교

<6>

일심

불문에 귀의하여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다면 아마도 마음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사천의 가르침을 줄이든 마음 심(心)자 한 글자만 남는다고 할만큼 불교에서는 마음을 중요시한다.

타종교에서는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심이라는 대상적 존재에 기준을 두고 말하는데 비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중생들 각자가 지닌 하나의 마음(一心)에 두고 설명하고 있음을 본다. 이른바 온갖 세상은 오직 하나의 마음뿐(三界唯心)이라는 <화엄경>의 말씀과, 마음은 온갖

부의 법도 유형의 법도 무형의 법도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한 마음이 기뻐 천상의 법이 나타나고 한 마음이 미혹하여 축생의 법이 나타나며 한 마음이 대담하여 아수라의 법이 나타난다.

여기에 어떻게 부처님의 법이라고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마음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활동하는 마음은 항상 어떤 인연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인연성이란 다음에 나타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만나고 익혀온 온갖 살림살이를 틀을 가리키는데 수행이란 이러한 자신의 마음에서 활동하는 인연성들을 곧 되비추어 즉관(卽觀)하는 것이다.

불법이 세상법과 다르지 않음도 여기에

한 마음서 만법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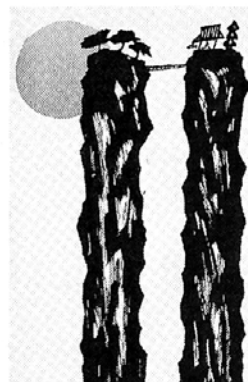
천당 지옥 악마 부처도 내마음의 화현
대상 좇지 말고 인연 보면 참모습 찾아

것을 만드는 기술자와 같다(心如巧兒)는 <인법가경>의 말씀도 이 뜻을 잘 밝혀주고 있다. 이같은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들이 지닌 마음은 그저 알고 분별하는 인식능력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닌 만법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세계와 생명의 주체이며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불교는 자신에게 처한 행복과 불행 역시 스스로 가 지은 마음의 결과로 여길 것을 가르치면서 대상을 닦고 좇는 행위를 그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천당이 되었건 지옥이 되었건 부처가 되었건 악마가 되었건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가운데에서 나타났을 뿐 마음밖의 모습으로 여기지 말 것을 가르친다. 선법도 약법도 성현의 법도 범

있다. 순간마다 삶을 통해 발생하는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생들이 일심속의 세상법을 관조하여 부처님의 법리를 본다면 마음과 부처와 중생에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알게된다. 그래서 과거 선사들은 삼계를 벗어나는 길을 묻는 수행자에게 "삼계를 벗어나서 무엇이 보겠다는 거냐?"고 반문을 던지고 읊지도 않고 덩지도 않는 곳을 가르쳐 달라는 수행자에게 "읊지도 않고 덩지도 않는 곳을 가려면 읊고 더운 곳으로 뛰어들라"고 가르쳤다. 오로지 용맹심을 가지고 일심속으로 뛰어들어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수행불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열 <유미선원장>



◇김현복 작

봉정사 국보급 후불벽화 훼손위기

기동부식 대응전 기울어

국보급 후불벽화가 발견(본지 112호 1면 참조)된 봉정사 대응전(보물 제55호)이 기울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벽화훼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정사에 따르면 대응전 내부 왼쪽 기둥이 나무의 퇴락으로 인해 2도 정도 기울고 있다는 것. 또 기둥 뒷부분인 공포(전통 목조건축에 쓰이는 조립부위)가 10cm

가량 벌어졌으며, 벽화를 지탱해주고 있는 기둥도 기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에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 문화재관리국에 긴급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은 "이는 종합적 검토를 거친 후 문화재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보수·보존처리 등 다각적 방안이 수립돼야 할 사안"이라며 보수 및 보존처리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전문 지도자(유발승려)교육생모집

1. 설립이념

본교육원에서는 현실에 맞는 실천불교, 체험불교, 생활불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지도자(유발승려)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불교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전문 종교인으로서 가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 : 1년

교육과정 (* 자세한 교육과정 내용은 설명회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불교학	종교학	포교학	불교의식(집전)	복지학	상담심리학	명리학
-----	-----	-----	----------	-----	-------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채용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지도자과정 30명 일반과정 30명	불자 고등학교 졸업, 30세 이상의 남·녀	입학원서 1통 본원 소정 양식 1통	원서교부 97년1월10일 ~ 2월 28일 접수 3월1일 ~ 3월 30일(정원모 13000원)	면접 및 서류전형 공·사 기밀채 영매복지기 우선전형

4. 특전

- ▶ 본원 졸업(전문지도자 과정)수혜 후 유발승려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원이 소유한 사찰 및 포교원 원장에 발령 임명함.
- ▶ 본원졸업(일반과정)수혜후 법사자격 부여 본원 포교사 임명
- ▶ 성취우수자에 한하여 본원과 자매 결연한 해외 종교 기관에 특별 연수

※ 교육과정 설명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 본원 대표전화 : (02) 423-1800

우리 마음의 절

부설 : 불교전문 지도자 교육원
불자가정 부처님 모시기 운동본부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8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분방송과(불교포도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2. 학교연혁

- 1989. 7. 3 학교설립공고
-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 8 불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 91. 8 불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 92. 7 제2회 졸업생 배출
-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 93. 8 불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불교제과
- 95. 11 불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 96. 11 불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사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95% 취업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3월5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2026-8 광주 삼복서적 : 222-025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동서 : 816-9500
대구제일서림 : 424-0801, 대전경문서적 : 252-8558
마산학문당 : 46-2925, 인천 대한서림 : 762-7337
김해 오복당 : 36-2105, 전주 흥지사림 : 88-531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